

우리의 시대의 삶  
2002 경기도 으뜸이







# 11

## 민족의 얼이 새겨진 수공의 길

### 대장공 안영선

똑딱 똑딱... 실새없이 들려오는 망치질 소리가 시끄럽기는커녕 정겹기만 하다. 이제는 그 시끄러움조차 들을 수 없게 사라져 가는 소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일까? 망치질을 하고 있는 구릿빛 피부와 힘있게 찢줄이 솟은 팔뚝이야말로 오늘날 한국 대장간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바로 안영선(60)님의 진면이 아닐까 한다.



#### 찾아가는 길

- 위치 : 의정부시 의정부동 232
- 대중교통  
의정부역 ⇨ 13번 ⇨ 추병원
- 자가운전  
서울 ⇨ 서부외곽순환도로 ⇨ 3번국도
- 약도



고철덩이 하나로 어떠한 쇠기구라도 제작할 수 있다는 장인정신 하나만을 고집하며 걸어온 40여년.

그의 나이 60이 되었지만 자신은 아직도 청춘이라며 빨갛게 달아오른 쇳덩어리를 힘차게 두드린다. 그런 두 눈에는 우리의 것을 반드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른다. 그의 이러한 뜨거운 의지는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대장간을 열기를 더 한층 달아오르게 한다.

고집이 센 자만이 우리의 것을 계승할 수 있는 것일까? 23년째 운영하고 있는 도매대장간이 위치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1동의 아침은 그의 힘있는 망치질 소리로 시작한다. 이젠 편하게 쉴 나이도 되었건만 타고난 성실함과 부지런함은 아직도 그를 새벽이면 대장간으로 향하게 한다. ‘노인(老人)’이란 단어는 더 이상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는 노인이 아닌 최고의 대장 기능자로서 청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장인인 것이다.

1958년 6월에 그는 대장쟁이로서 첫 출발을 하게 되었다.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면서 처음 결심했던 그 마음 그대로를 간직하며 살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럴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그의 주름진 눈가에는 40년이 넘는 세월을 오직 대장 기능자로서 걸어온 그의 역경이 그대로 묻어 나오는 듯 하다.

경기도 수원시 북수동 소재 형제대장간에 입문한 뒤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이 가는 이 길의 중요성을 자신에게 매일 각인시키며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루하루를 고되게 걸어왔다고 말한다. 대장쟁이란 기능이 점차 현대 문명 속에 사라져 가는 모습을 가장 가슴 아프게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그는 한가지 일만을 고집하는 자신의 우직함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단점이자 또한 가장 큰 장점이 라고 말한다.

지금 돌이켜 보면 젊은 시절 그때의 그 고집이 오늘의 최고의 대장 기능자로 살아가는 자신을 있게 한 것이라고 회고한다. 그로부



터 20년이 넘게 흐른 뒤 1979년 8월에 의정부 시 의정부 1동에 '도매대장간'을 개업하게 되고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대장쟁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의 얼굴에 흘러내리는 굵은 땀방울은 개인의 땀방울이 아니라 전통방식을 그대로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는, 모든 대장기능자들과 함께하는 이 땅에 열이 새겨있는 땀방울 일 것이다. 흘러내리는 굵은 땀방울을 옷자락으로 훌훌 닦아내면서 그는 아마도 자신의 뒤를 이어나갈 대장 기능자들을 걱정하며 희망을 이끌어줄 선배 기능자로서의 자세를 더욱 견고히 다지고 있는 듯 하다.



## 배움으로 일구어나가는 전통문화

그는 배움의 길에는 끝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모든 일에 있어 쉽게 포기 해버리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경각심이라도 심어주고자 그는 자신이 젊었던 시절에 충분하게 못다 이뤘던 배움의 길을 지금까지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배움이 없이는 자신에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순이 넘은 나이에든 방통대학 법학과에 다니며 남다른 향학열을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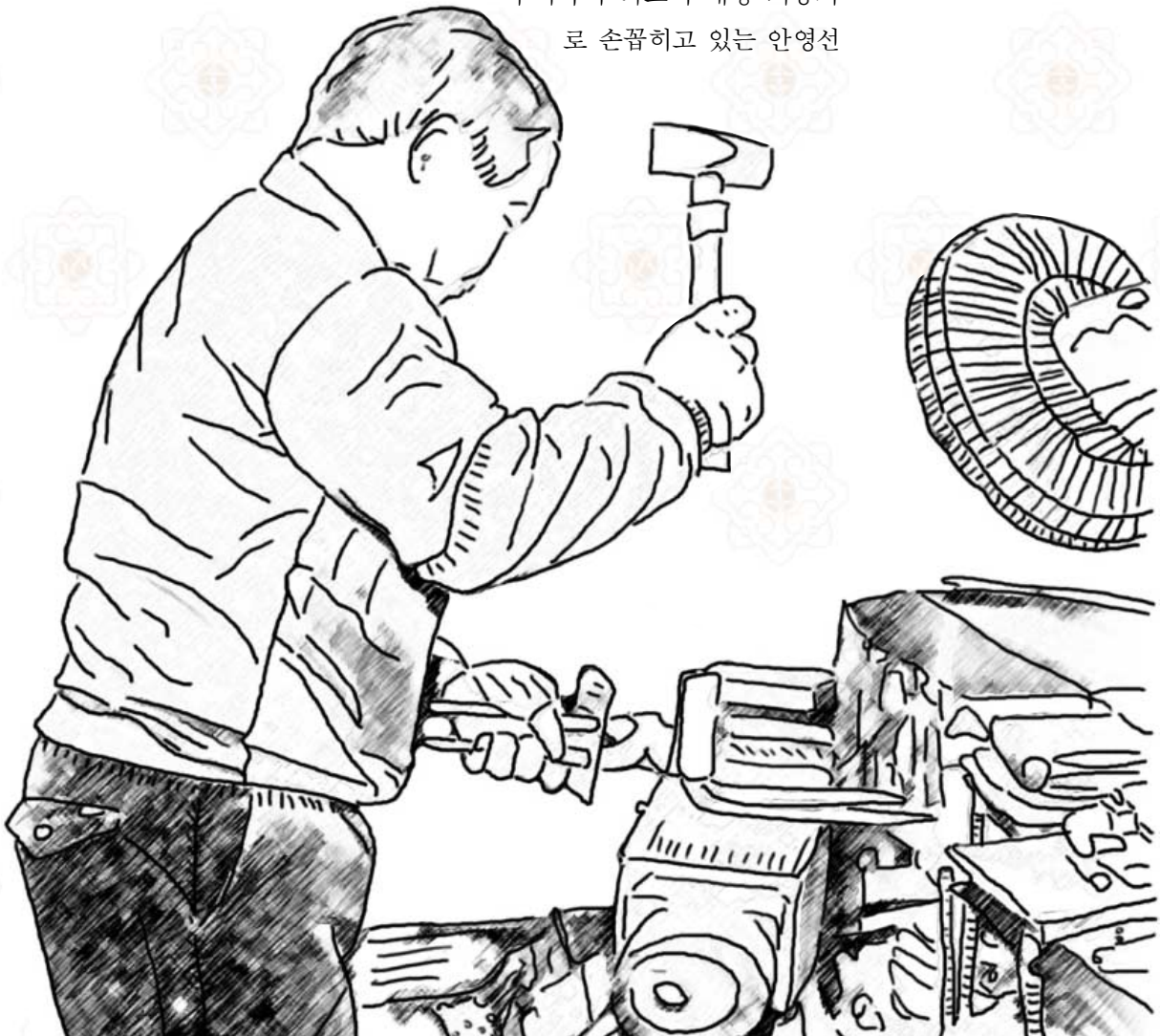


그의 작업장은 그리 크지 않다. 그렇지만 그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작업장은 그에게 있어서 삶의 전부이자 자신의 분신이다.



쉽게 실증을 느끼고 쉽게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조언한다. “지금에 펼쳐진 현실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도피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자신을 추스릴 수 있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고 서슴없이 얘기하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최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최고를 지향하고 최고를 꿈꾸며 최고임을 자처한다. 그렇지만 전통방식을 고수하여, 쇠를 단조해 망치로 두들겨 펴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며 수십 수백 번의 수공으로 만들어 한 수이북의 최고의 대장 기능자로 손꼽히고 있는 안영선



씨야 말로 이 시대가 바라는, 이 사회가 추구하는 진정한 최고일 지도 모르겠다.

## 고철덩이에서 쇠기구로...

사실 대장간의 일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임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외로운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그의 모습은 오히려 의연해 보인다. 그의 인생도 대장간에 비유해보자면 고철덩이에서 끝없는 자기성찰과 노력으로 쇠기구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 단련의 기간이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달려갈 준비가 되어있다.

수입개방의 물결속에 밀려 들어오는 값싼 농기구들 속에서 점점 자기를 잃어가는 우리 농기구들을 지켜내기 위해 오늘도 힘차게 망치를 두드리는 안영선씨. 고철덩이 하나에도 민족의 얼을 새기며 그의 이런 고집스런 장인정신이야말로 거세게 밀려드는 외국문물 속에서도 당당히 우리 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싶다.

지금도 의정부시 한편에서 그의 망치질 소리가 요란하다.  
뚝뚝뚝.....